

진흙속의 진주 한 알 (아)

류복희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 1동)

나는 곧바로 밥을 데리고 대학교로 달려 갔다. 학교는 이미 인산인해였고 원서 마감 시간은 40분이나 지났지만 수위아저씨께 사정을 얘기하고 간신히 학교로 들어가 저녁 9시가 다 되어서야 점수를 마쳤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딸은 "어머니! 정말 부처님이 계시는 것 같아요. 내가 간절하게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며 '제발 우리 어머니 좀 저에게 보내주세요. 저 혼자는 도저히 못 갈 것 같아요'라고 기도했더니 어머니가 제 앞에 나타나셨어요"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간절함과 절박함이 어린 가슴을 다 녹이고 있을 때 내가 앞에 나타났으니 그대로 힘을 잃고 쓰러졌던 것이다.

원서를 접수한 후 나는 딸아이의 합격을 기원하기 위해 100일 기도를 시작했다.

100일간 매일 밤 12시에서 다음날 새벽 1시 30분까지 <천수경> <관세음보살보문품> <금강경> <이산해연선사발원문> <반야심경>을 각각 읽는 것이었다.

체력이 워낙 약한 나로서는 한 달도 못돼 몸에 이상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잠이 억수같이 쏟아졌고 앉아 있을 때도 혼란으로 인해 몸이 앞뒤로 정신없이 흔들렸다. 어떤 때는 헛소리도 나오고 허가 굳어져 목경을 할 수 없을 때도 있었다. 그래도 누우면 열 자버릴 것 같아 앉은 채 졸다가 새벽 5시가 될 때도 있었다. 비몽사몽 시달리면서 100일을 마치고 열흘남게 누워 지냈다.

이런 모든 노력들을 부처님도 불쌍하게 보셨는지 내 딸에게 합격의 영광을 주셨다. 정말 어떻게 세상에서 거저 얻어지는 게 있을까? 사방세계 두두물들이 다 합당한 근본을 갖추고 있지만 우리는 믿지 않아 알지 못한다.

내 아들은 딸에 비해 공부를 잘 못해 대학교를 못 가고 상고를 나와 취직을 했다. 그러나 얼마 마음은 늘 아쉬워 이제는 아들을 위해 한 번 더 기도를 해보자는 마음으로 아

들이 군에 입대한 2년 동안 기도를 하기로 했다.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이 빈약한 몸과 정신으로 최선을 다해 기도하는 것 밖에 없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들은 입대한 후 육군사관학교 조교로 배치되었다. 그러나 2년간의 군생활은 아들의 성격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인상도 너무나 사납게 변했다. 사람이 환경에 그토록 민감한지 예전엔 미처 몰랐다.

그런 동생의 모습을 본 딸은 "군에 가기 전 직장생활을 하며 모은 돈이 있으니 그동안 직장생활을 하며 모은 돈이 있으니 그동안 공부시키는 셈 치고 보육교사교육을 시켜보자"고 제안했다. 아들도 자신을

거룩한 님이시여, 이 불연의 가피를 어떻게 회향해야 마땅하겠습니까?"

부처님은 나를 수행자로 거듭 태어나게 하고 물러남이 없는 길에 들게 해주었다.

부처님의 가피를 입고 행복이 가득한 생활을 하던 어느 날 동화사에 다니는 한 신도가 <한마음요전>을 나에게 주었다.

당시 나는 대행 큰스님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다. 한마음선원의 선원장 스님으로 주인공이란 화두를 주심으로써 우리 도반들의 갈 길을 밝혀주시는 분이란 것도 현대불교신문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나는 이 <한마음요전>을 읽고서 큰스님



그림 · 문병성

100일 기도후 딸 대학 합격 가피 얻어 불교대학 입학... 포교사 고시 도전 계획 남 위하는 삶 '시신 기증'으로 마무리

걱정해주는 누나의 의견을 받아들여 또 다른 세상을 시작했다.

보육교사과정은 일년이었다. 교육 담당 교수는 모 전문대 유아교육과 교수로, 아들을 너무나 잘 챙겨주고 도움도 많이 줬 생각 이상으로 아들이 잘 해낼 수 있었다.

교육을 이수한 다음해에는 교수님의 조인대로 전문대 유아교육학과에 특별전형으로 입학하기도 했다. 아들은 대학 2년 동안 과대표로 왕성한 활동을 했고, 졸업할 때는 공로패를 받았다. 그리고 다시 4년제 대학에 편입해 졸업을 했고 지금은 유치원 체육교사로 일하며 같은 과 여자친구와 사랑을 키우고 있다. 딸도 같은 학교 선생님과 사해에 결혼을 할 예정이다.

"정말 우러러 예경합니다. 지혜충만하신

의 불연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행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비참하고 처절한 인욕 속에서 알지 않은 미세한 빛이 있어 깨질 듯 하다가도 다시 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큰스님의 행장을 읽으면서 큰스님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그렇게도 모질게 이 인고의 땅에 오셨을까를 생각하며 나는 그냥 눈물이 흘렀다.

부처님이 그냥 오셨을 리 없고 또한 역대 조사님들과 대행 큰스님이 그냥 이 땅에 오셨을 리 만무한 일. 분명히 모든 성현님들은 처절한 자비실천으로 지혜를 닦아야 한다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 오셨으리라. 이제 내 생애도 불연을 지은 바, 곳곳이 나아갈 바를 알게 되었다.

기쁘면 기쁘 대로 그대로 두고 슬프면 슬

픈 대로 그냥 그대로 나아가자. 하늘이 들고 땅이 돕는 가피원력이 늘 이어질을 어찌 글로 다 나열할 수 있을까? 나 역시 그 가피 그 은혜 오직 부처님전에 회향하는 일 외에 더 무엇이 있을까?

나는 이제 부처님만 내가 먼저 올곧게 수행하고 이타행을 하려는 각오를 하고 대구불교대학에 입학했다. 열심히 강의에 출석해 듣고 배우는 학업에 충실하고 있으며 대승경전반인 대학원도 같이 등록해 수업을 받고 있다. 내년에는 졸업과 동시에 포교 사시험까지 마칠 예정이다.

또한 나는 현재 번두리 작은 동네에 노스님 한 분과 노공양주 한 분이 살고 있는 작은 마을에서 매주 월요일 백발참회기도를 집전하고 있으며 한 스님의 사찰운영후원을 맡고 있다. 내년엔 두 학급을 졸업하면 조건이 어려운 외곽의 사찰에서 요일법회를 활성화하는데 좀 더 많은 시간을 기질 예정이다. 그리고 또한 사후 이 몸뚱이는 경북대 병원에 기증해 해부실습용으로 쓰일 것이다.

내 생애 이제 갈 곳이 뚜렷하게 정해진 길 그 길은 오직 부처님 회상에 들어가는 길이

며, 올바른 정도(正道)에 회향하는 것이며 도반들과 부족하지만 애쓰는 마음으로 법답을 나누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제는 두려움이 없는 대자유의 수행인이 될 것이다.

이제 나는 15년 전에 비구 스님께 받은 속제인지 화두인지 알 수 없는 '진흙 속의 진주 한 알'을 찾는 일을 제대로 해볼 것이다. 어쩌면 지금은 노출시킬 수 없는 한 알의 완성을 위해 제 살갓에 상처를 내고 살을 에는 인욕을 거듭하며 한 알의 완성을 위해 단단한 삶을 채우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완성된 진주의 빛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결하며 은은한 빛일 것이다. 나 또한 이러한 빛과 같이 나와 남이 이익되게 수행하여 많은 이들과 이 빛을 함께 할 것이다.

진흙 속의 진주 한 알이 고통의 결정체로 완성되듯이 나는 거기에 부끄럽지 않은 수행자의 진면목을 갖춘 후 반드시 한 알의 진주를 만들어서 부처님께 공양 올려 보은의 회향을 하리라.

이 다짐 변하지 않게 하여지이다. 마하반야바라밀. (끝)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살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폭풍이었던 감동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연중 접수한 신행수기 가운데 우수작은 소정의 고료를 드리고 신문에 연재하며, 연말에 최종 심사를 거쳐 시상합니다.

- 주제: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2004-8241
- 인터넷 접수: by.park@buddhapia.com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이시린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현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 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추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교재주문: 수정기공리닉 (일금 30,000원) ●온라인 번호: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김문기)
 ●속성강의 접수: 1개월 과정 (매일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참고: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리닉.COM ●장소: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배개속에 넣고 평생 사용 늘~건강이고 편안함 잡지러

상쾌한속면 신비의은행석

배개속 1인용 65,000원 → 45,000원
"부모님께 최고의 효도 선물"

죽어가는 것도 살리는 은행석 **생명의 빛/생명의 기!**

복한에서는 은행석은 죽어가는 것도 살린다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야에다 수돗물을 받아 붓어 넣으면 붉어는 배를 뒤집고 험타이며 죽어갑니다. 이때 은행석을 넣으면 붉어는 청청하게 살아납니다. 고급난, 분체 등 죽어가는 것도 살릴 수 있어요.

복한 일부 고위층만 사용하며 저를 믿고 주무시며 건강하게 장수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의심이 많아요. 심하게 코를 골거나 기침을 하시는 분에게 적극 권장합니다. 손발이 자주 붓거나 저린 분은 은행석 목걸이, 팔찌와 같이 사용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음이온을 첨가하여 어깨 통증완화 및 각세포의 기능 향상**

건강도 지켜주고 젊음을 유지하는 **은행석 안심목걸이, 팔찌**

◆목걸이,팔찌 : 머리를 맑게 함, 손발저림, 어깨결림해소, 혈압조절, 혈안상승억제, 전신에 뭍을 고루 전달 기력회복, 심장박동이 원활하여 마음을 안정 시킴,신진대사촉진, 피가 맑게 하며, 다이어트에 효과

은행석 108염주, 손목압상주도 제조 판매합니다

금강닥터 문의전화 (02)723-9184 www.dk21.net
 ◆입금계좌:농협 1143-12-049474 송명화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관절염, 신경통, 오십견, 류마티스

한방요법으로 치료한다

윤원장은 우슬, 창출, 당귀, 맥아로 60℃에서 6시간 동안 알콜추출(65브릭스로 농축), 숙단, 구판, 홍화자 외 19개 약재를 북수효보와 후설탕으로 16일간 속성발효하여 몰약을 액상화시켜 丸(丸)으로 만든 관신환(丸)을 처방하여 관절염, 신경통, 류마티스, 오십견 등에 주효하며 5~7일 정도 복용하면 통증 완화, 부기감소가 나타나며 혈행개선에도 뛰어난 효과가 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다. - 관신환(丸)

기관지천식
천연생약제로 치료한다

윤원장은 항암작용이 뛰어난 신비한 약초로 구성된되어 온 백화사설초(白花蛇舌草)와 그 외 수종의 약제로 만든 기천탕을 처방하여 수년간 기침·가래·기관지천식으로 고생하신 환자에게 복용시켜 많은 효과를 보고 있으며, 환자증상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30일만 복용해도 80~90% 이상의 개선효과가 있었으며, 환자에 따라 1~6개월까지 복용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 기천탕(湯)

윤원한의원 원장 윤원

자료제공 02-598-9832
윤원한의원

승광불교전통미술원

귀의 삼보 하옵고....
대덕 큰스님의 성원으로 불교미술 발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할수 있도록 지도 편달 바라옵니다

●불상 ●화 ●금 ●원형조각
●불사상 ●천불삼천불 ●불교용품

전 화 02-491-5336, 02-494-7478
공 방 031-595-6557, 031-595-6558
휴대폰 011-226-5336
e-mail : 0112265336@nate.com
목우 손 등 술 합장

기적의치약 스님과 불자님! 지긋지긋한 치아

美國브라이트로 7일만 닦으시면 고생 끝!

스님? 7일만 닦으시면 고생 않습니다.

스님? 세상에 서 제일 고통스럽고 참기 어려운것이 이가 아픈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스님들은 믿으세요. 저는 대전에사는 보살입니다. 대전에-있는 사람을 방문 하였을때 스님과 함께 공양을 하게 됐는데 1년전부터 치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다가 양쪽 어금니를 뽑고나니 다른이도 흔들리며 참을도 못먹고 하루하루 진통제에 의존해 왔고 병원에 자주 가야만 했습니다. 스님과 공양중에 이가 아파 참 못하는것을 본 스님께서 미국구강학회에서 추천한 브라이트치약을 주시면서 아침저녁 7일만 닦으면 이가 좋아진다고 해서 마음속으로 병원을 다녀도 효과가 없는데 치약까지도 믿기 의심하면서 스님께서 주신거라 아침저녁 사용하면서 4일째 되는날부터 진통제를 먹지 않아도 되고 참를을 먹어도 이가 시렵지 않는 놀라운 효과를 보았습니다. 일만치약처럼 7일정도 사용하면 입냄새는 물론, 10일정도 사용하면 풍취, 잇몸부러, 잇몸농증, 전염성과 뜨거운 음식을 드실때 통증이 깨끗이 없어지며 누런이가 하얀이로美白도 됩니다.

* 五福중의 으뜸가는 치아를 보존하는데 기적의 약초치약으로 충분합니다.

가격은 50,000원입니다.

수입판매원 **금강닥터사**
TEL:(02)2271-1441 농협:360-12-046446 최능우